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 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아모스**

하나님 선민에 대한 심판

(아모스 3 : 1~15)

원로목사 **이종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고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민에 대한 심판은 가장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선민도 차별이 없습니다.

1. 점진적 심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아꿈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창35:10).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뿐만아니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히 12:8)

하나님의 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아홉가지 질문을 하시고 후에 선언을 하시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있기 전에 있습니다.

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3절).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의 근거를 말씀한 것입니다. 같은 멩에를 멘 소는 한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악행으로 간주하시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야 합니다.

②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4절). 사자의 앞에 먹을 것이 없다면 사자가 부르짖을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멸망시킬 대상이 없다면 위협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③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4절).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④ “덧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어겠으며”(5절). 새는 덧이 없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참회개 없다면 하나님의 재앙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⑤ “잡힌 것이 없는데 덧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5절). 심판의 대상이 발견되면 곧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⑥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6절). 이스라엘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나팔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울릴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듯이 선지자가 나팔 소리와 같이 예언을 할 때 백성들은 말씀을 두렵고 신중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⑦ “여호와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6절). 재앙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⑧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8절). 부르짖는 사자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무서워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⑨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8절). 아모스는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받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에벤엘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14절).

제사장들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목사가 비난의 대상이 될 때 나라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과 나라가 망하는 날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안에 숨을 때에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함을 얻게 되니 예수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

I·II·III부 예배-성찬식 / 맥추감사헌금 드려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이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 오늘 I·II·III부 예배 시간에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맥추감사헌금을 드린다. 맥추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현대에는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2017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다시 거룩한 교회로!」 / 사랑부를 시작으로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월 23일(주)	706호	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Holy!	강남희 전도사
유치부	7월 30일(주) 2~4시	702호		
유년부	7월 28일(금)~ 29일(토)	아가페타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최근영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7월 21일(금)~22(토)	아가페 타운	하나님의 거룩성 회복	윤누가 목사
고등부				
청년1부	7월 17일(월)~20일(목)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서준권 목사
청년2부	8월14일~15일(화)	아가페 타운		
사랑부	7월 8일(토) 7월 9일(주)	아가페 타운 서울교회	구원의 영웅	서명철 목사 서준권 목사 주원순 전도사

홍해작전 교회학교별 4·7행시, 그림그리기 수상자

홍해작전 본부(본부장 : 최광성 장로)는 지난 6월 25일(주) 2017 홍해작전 교회학교별 4·7행시 수상작과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을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시상식은 교회학교별로 있을 예정이다.

부문	부서명	사랑상	믿음상	소망상	참가자
그림그리기	유치부	노준	이재중	윤은성 조예원	28
	유년부	노윤	김서연	임하울	26
	초등부	정은채	오유나	박종환	15
	홍해상 (유년부)	배은준 조건우 양승호			
4·7행시	초등부	이인애	정은지	임하린	5
	중등부	최의연	김재령	장하늘	14
	고등부	송윤희	공지혜	장하람	11



맥추감사절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로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麥秋節)은 오순절(五旬節) 혹은 칠칠절(七七節)이라고도 불렸습니다(출23, 34장, 레23장, 신16장).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수여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란 명칭은 신약성경에만 나옵니다(행 2:1, 20:16, 고전 16:8). 오순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서 지킨 절기입니다. 따라서 초실절(初實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출34:22).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째인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그것은 한 해의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편집부)

2017 하계 국내 전도단 모집

오늘 신청 마감

교회는 2017 하계 국내전도단 전도단원을 모집한다. 2017년 7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장소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대진중앙교회이다. 신청 및 문의는 서준권 목사에게 하기 바란다.

“ 랩비여 나는 아니지요? ”

첫째 날
성령강림의 약속
(행 1:1-11)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므로 그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위기를 타파해 나갔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우정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은 사람을 '데오빌로여'라고 부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이제는 더 이상 격식이 필요 없는 친숙한 관계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정은 성도의 교통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우정 뿐 아니라 메시지를 발전시켰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젖을 먹여야 하고, 이유기에는 이유식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후에는 각종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이 신자도 신앙 성장에 따른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무속신앙과 기복신앙에 머무르겠습니까? 피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것으로, 들음에서 행함으로, 체제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기적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후회하는 것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를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너희 눈에는 내가 혁명가로 보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몹시 섭섭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능력 없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발을 가는 사람은 쟁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수행할만한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욕심과 열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를 형성하고,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고, 고백한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고, 전도한 그들이 다시 모였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 신앙을 잘 형성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 국가가 소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날
박해 중에 당할 수 없는 사람
(행 6:8-15)

초대교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신앙으로 이 죽음을 이긴 스테반 집사를 두고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권력가도 아닌 한 평범한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의 박해, 돈의 박해, 향락의 박해가 있습니다. 이 박해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 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박해로 인해 교회는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올 때 교회는 오히려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고,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사실 앞에 겸손했고, 진리 앞에 정직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았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생사를 초월한, 이해를 초월한, 국경을 초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스테반은 매사에 정당하여 공의 중심이고 봉사 위주의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동시에 스테반 집사에게는 그 누구도 말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스테반의 논리나 음성이나 화술 때문이 아니라 스테반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스테반은 중상과 모략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습니다. 천사는 진실의 상징입니다. 스테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경건의 상징입니다. 스테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천사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므로 스테반은 평화로웠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려면 역사관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스테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거듭 은혜를 베풀었던 과거를 은총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은총의 역사를 패역의 역사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누우치고 회개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순종과 보답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스테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재촉했습니다.

스테반은 최고의 죽음을 죽었고 하나님께 열납된 죽음을 죽었습니다. 세상이 당할 수 없는 스테반 집사와 같이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도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보답의 역사를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 날
강조할 것보다 주변적인 것을 강조한 이들
(행 4:5-11)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만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표적과 기사를 찾았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예수 복음보다는 정치적 자유, 세속적 부귀, 안일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들을 교회가 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신학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앓은뱅이가 아니라 우리는 앓은뱅이를 고치신 예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가건적인 것이 불가견적인 것으로 바뀔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과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불가견적인 존재가 되었고,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성령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 없는 신자는 죽은 신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한 후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리로는 고혈압증 환자요 행위로는 반혈증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므로 언제나 말씀 증거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동의 변화가 있고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눔의 삶을 살게 되고 희생의 삶을 살게 되고 증거의 삶을 살게 되고 무엇보다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120문도들이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임하여 역사하시고 감화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제 3위 신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었다면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울고 헤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교회가 강조해야 할 것은 세계복음화, 교회의 천국화, 문화의 기독교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권을 바로 선정하여 예수님께 헌신하고 교회와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역에 헌신하고 총력을 기울이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넷째 날 성장 중에 생기는 위기 (행 21:17-26)

오랜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진리가 왜곡되고, 동지가 적이 되고, 무엇보다 신앙인이 불신앙인이 되어 자기의 원수가 된 것을 보고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누구보다 바울을 지지해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막고 바울을 적대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여러 개의 계파가 생겨났고, 음란이 판쳤고, 우상숭배의 죄까지 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은사 문제로 교인들 간에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이런 위기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Growing Pain, 성장 중에 생기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겉손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행 20장). 바울에게는 야고보와 같은 동지도 있었고 훌륭한 장로들을 동역자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성전을 모독했다고 비난했고, 반민족주의자라고 했으며 심지어는 율법을 폐기한 자라고까지 공격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인내로 주를 섬겼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했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겉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전하려는 열심과 고넬료의 배우려는 열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조직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질서를 위해서는 교회에도 반드시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에 몸담게 된 사람들은 각각 이름값, 나잇값, 자릿값을 해야 합니다.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을 세우므로 인해 조직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구제 문제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마찰이 생기자 사람들은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결과에 승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말씀에 복종하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신자의 수가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있거나 비판의 소리가 들려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타협을 하거나 굴종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질 때마다 사탄에 의해서 끌려가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서울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있든 칭찬이 있든, 동에 가든 서에 가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째 날 거짓(위선)의 위기 (행 1:6-11, 5:1-11, 10:8-23)

구브로에서 온 요셉이 자기 발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때 사도들은 그를 몹시 칭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들도 발을 팔아 일부를 감추어 두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가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거운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부가 악을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상대방의 약점과 허점을 서로 채워주므로 온전하게 행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다투는 아내 미갈의 불신앙을 책망했고, 아버가일은 나발의 미련한 행실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함께 악을 도모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성도가 진리로 거룩해질 때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사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게 되자 그들에게 편견과 아집이 생겼습니다. 편견의 위기가 이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옴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각종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금력과 자기 자신을 상대화 시킬 때 모든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는 마음과 시야와 행동반경이 넓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전략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를 향해가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전략은 양적 원리와 질적 원리입니다. 양적 원리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것이고, 질적 원리를 위해서는 바른 신학이 기초해야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바른 신학 위에 기초해야만 질적으로 우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이라고 해서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가슴으로, 행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우리의 기도는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편안하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초가 녹지 않고는 촛불이 밝혀지지 않듯,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고 희생하므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째 날 지도자의 위기 (행 8:1-2)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중간 지도자입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 외에는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기 몸을 불사르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The leadership is servanthship, 참된 지도자는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 모습은 없고 오직 종의 모습만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을 교회와 일치시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을 교회와 일치시켰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시간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예수님은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와 일치시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따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대 웅변가였습니다. 이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고 자신이 넘쳐났습니다. 체험은 경험과 달리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어서 언제든지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무장되었던 사도들의 말은 무게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연합정신이 투철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전이란 단순한 꿈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받고 끝까지 믿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The Seer,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때로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십자가에 소망의 줄을 든든히 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승전하는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 허숙 권사 (편집부)

2017 홍해작전

홍해 어떻게 건넜나?

지난 주일에 각 교육부서마다 홍해작전 백일장, 4행시·7행시,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었다. 수상자는 순례자 2면을 참조 바란다.



홍해작전 그림그리기대회, 4·7행시 백일장모습



노 윤 (유년부 사랑상)

홍해작전 그림그리기 심사평



김정미 집사 (13교구)

홍해작전 기도회를 맞이하여 그림그리기를 통한 홍해를 가르는 내용과 믿음을 각인시키기 위한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출품된 유·초등부의 작품들은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본 신앙고백이었습니다. 순수한 드로잉의 작품들은 조형성을 뛰어넘은 최고의 현대미술이었습니다.

출품작에 우열을 가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색채의 대비, 자유로운 드로잉, 구성능력, 완성도를 심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림그리기 시간을 통하여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합하고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로서의 미술 시간을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시간을 계기로 교회학교가 발전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입상된 작품과 출품된 모든 작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며 좋은 작품 출품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정은채 (초등부 사랑상)



노 준 (유치부 사랑상)



오유나 (초등부 믿음상)



이재중 (유치부 믿음상)

이인애 (초등부 사랑상)

- 홍 : 홍해작전이라는 새벽기도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 해 : 해가 뜨기도 전부터 한 마음이 되어
- 작 : 작심삼일되지 않고 악한 영들과 열심히 싸워
- 전 :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정은지 (초등부 소망상)

- 다 : 다시
- 시 : 시작해요
- 거 : 거룩한 마음으로
- 룩 : 룩룩 어라운드 더 쉼즈
- 한 : 한 마음으로
- 교 : 교회를
- 회 : 회복해요

임하린 (초등부 소망상)

- 홍 : 홍해를 건너자
- 해 : 해마다 시작되는 홍해작전
- 작 : 작은 마음을 모두에게
- 전 : 전하자

최의연 (중등부 사랑상)

- 다 : 다시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에
- 시 :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 거 : 거짓없이

- 룩 : 룩[Look,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만 좋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 한 : 한 사람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하여
- 교 : 교회를 다시 예전의 서울교회로
- 회 :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서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중등부 믿음상)

- 다 :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
- 시 : 시작하는 마음으로
- 거 : 거짓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 룩 : 육하고 화내는 것보다 서로를 사랑하며
- 한 :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면서
- 교 : 교회를 다시
- 회 : 회복시키자.

장하늘 (중등부 소망상)

- 홍 : 홍해를 건너 모세와 백성들의 믿음으로
- 해 : 해 내는 우리교회의 평화
- 작 : 작심해서 이뤄내는 화합의 교회
- 전 : 전처럼 평화로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송윤의 (고등부 사랑상)

- 홍 : 홍해작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해 : 해마다 많은 성도들이 오셨지만 올해는 힘든 상황에도 더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 작 :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 홍해작전이지만, 꾸준히 교회에 오셔서
- 전 :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공지혜 (고등부 믿음상)

- 홍 :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 해 : 해하려고 온 애굽 사람들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마 17장 20절의 말씀에 거저씨 한알 만큼의
- 작 :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 전 :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람 (고등부 소망상)

- 홍 : 흥해처럼 큰 난관을 만날지라도
- 해 : 해를 바라보며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 작 :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가 작은 씨앗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하는 것처럼
- 전 :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사랑부 여름성경학교

도전, 구원의 영웅!



백보복 집사 (사랑부 부감)

오는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아가페 타운과 교회에서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교회가 지극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지난 1월 15일 이후 사랑부는 교사를 재정비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에게 집중하며 교회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도교역자 주원순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부장단과 교사들은 한 마음이 되어 혼란한 시기에 혹사라도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사랑으로 한 명, 한 명 보살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학생들을 두고 밀고 당기는 일도 있었으나 이제는 안정을 되찾아 사랑부 학생들도 옹고 그름을 분별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회로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부 성경학교의 주제는 'Challenge, 믿음의 영웅'으로, 모세와 노아와 같은 구원의 영웅에 우리 사랑부 학생들이 믿음으로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로 정했습니다. 말씀을 주면 주는데로 흡수하는 사랑부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들이

니다. 비록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세 분의 강사(서명철 목사님, 서준권 목사님, 주원순 전도사님)가 시간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며 찬양교사와 미술공작 교사, 체험 학습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알차고 재미있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페 타운에서는 호산나 대학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발달장애인 대학에 남다른 비전을 가졌던 이종윤 원로목사님은 서울교회 설립 직후 지체하지 않고 사랑부를 개설토록 하였고 발달장애인의 배움의 전당이요 서울교회의 자랑인 호산나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약한 자에게 유달리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마치면 사랑부는 믿음으로 하나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학생들의 신앙적 성장이 눈에 안보일지라도 그들은 천천히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작전

우리교회를 평화롭게 해주세요

최시원 (유년부 3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3학년 최시원(사진:가운데)입니다. 이번 새벽에 부모님과 홍해작전을 가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마음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주차하고 올라오면서도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웃으며 반겨주시는데 예전처럼 교회가 평화롭게 바뀐 것 같았습니다.

첫날에는 졸립기도 하고 새벽기도가 끝나면 8층에서 라면을 먹을 수 없어서 조금 실망도 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면 선생님께서 활짝 웃으시며 반겨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또 출석 도장도 찍어 주시고 원로목사님께서 어린이들을 많이 칭찬도 해주셔서 제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려웠지만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다고 원로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홍해작전은 꼭 8층에 올라가서 라면도 먹고 더 길게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교회가 예전처럼 평화로울 수 있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많이 큰 다음에도 홍해작전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갔던 것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동정

- 김형상집사(3교구) 한국세무사회 감사 당선
- 금주 식사 제공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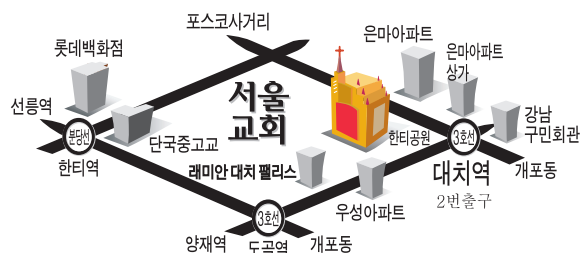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금년도 상반기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킬 수 있도록
2. 7월 8일(토)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로부터 시작되는 2017년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서울교회의 다음세대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3. 이 땅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도말하시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짧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